



KC GREEN HOLDINGS

2017 JUNE

KC NEWS LETTER VOL.92

목 차



1. 2017년도 KC그린홀딩스(주) 워크숍 개최
2. KC글라스(주), 창립 제 46주년 기념행사
3. KC코트렐(주) 대만법인, 2017년 상반기 이사회 개최
4. KC환경서비스(주), 임원워크숍 개최
5. KC환경서비스(주), 사업부 유닛 회의 진행
6. KC환경서비스(주), 운영공무 유닛 회의 진행
7. KC코트렐(주) 중국법인, 창립 15주년 기념식 개최

2017년도 KC그린홀딩스(주) 워크샵 개최

지난 6월 16일, 1박 2일로 강화도 라르고빌에서 KC그린홀딩스(주) 전체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재무관리팀과 전략경영팀, 그리고 올해 신설된 지속가능경영팀 전원과 이태영 대표이사, 김정완 부사장, 김종열 감사, 박기서 부사장이 함께 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워크샵은 KC그린홀딩스의 중장기 전략 리뷰, 그리고 각 팀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순서였다. 각 팀은 그동안 준비해 온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타 팀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공고히 하였다. 다음으로는 KC그린홀딩스의 기존 사업 확장과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한 아이디어 개진의 시간이 있었다. 화장품 사업, 폐섬유 재활용, 팜테크 등 여러 가지 신사업에 관한 아이디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개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KC그린홀딩스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한 조직문화에 대한 논의 시간이 있었다. 플렉시블 타임제의 확대 적용, '님' 호칭 사용, 장기근속근로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 원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 하는 시간이었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오전부터 시작된 워크샵을 마치고, 전 직원이 야외바베큐장에서 고기를 먹으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직원이 하나되어 즐기는 모습을 보니, 더 협력하고 배려하는 KC그린홀딩스의 미래가 기대되었다. 절반 정도 남은 2017년에도 팀워크를 다지며, 협력하고 노력하는 KC그린홀딩스가 되기를 바란다. (끝)

KC글라스(주), 창립 제 46주년 기념행사

KC글라스(주)는 지난 6월 8일 2층 교육장에서 창립 제 46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지난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성장과 안정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기에, 이를 치하하기 위하여 20년, 10년 장기근속자들과 모범사원에게 감사의 상패와 부상을 시상하였다.

이석구 부사장은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KC글라스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유리병 제조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유리병사업, 유리소재사업과 더불어 금속소재 사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정진하자고 다짐하였다.

또한 전임직원이 함께 올바른 신념에 관한 특강을 시청하였으며 High -5 구호 제창을 끝으로 창립 기념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KC글라스는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임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끝)



KC코트렐(주) 대만법인, 2017년 상반기 이사회 개최

KC코트렐 대만법인은 지난 30일, 첫 번째 반기 미팅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KC코트렐 대만법인의 6주년으로, 그 동안 KC코트렐 대만법인은 대만 내에서 전문성과 숙련도를 살려 지속적으로 KC코트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 6월부로 수주 목표의 41%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2017년의 수주 목표를 연말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환경 규제들이 변하고, 환경 산업 내에서 경쟁 업체들의 사업 영역이 바뀔에 따라서, KC코트렐 대만법인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경영전략을 바꾸고, 시장의 기대 수준을 초과하고자 한다. 또한 KC코트렐 대만법인은 대만 로컬 커뮤니티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KC환경서비스(주), 임원워크샵 개최

KC환경서비스(주)는 지난 9일,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작년 말 신설된 KC환경서비스 합병 법인 이후, 최초의 임원 워크샵이었다.

KC환경서비스 임원진들은 제주도 상호원 대회의실에서 현재까지의 사업을 보고하고, 추가 사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소각 3사에 적합한 ERP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진행된 KC환경서비스 임원 워크샵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 전 인원은 상호원 산책을 즐기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원 워크샵을 계기로 더 활발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KC환경서비스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



KC환경서비스(주), 사업부 유닛 회의 진행

KC환경서비스(주)는 지난 16일에 관리팀 워크숍을, 23일에는 영업팀 유닛 회의를 가졌다. 창원사업부 관리팀 유닛 회의에서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관련 ERP 진행 상황과 계정 과목 통합 논의를 하였다. 또한 상조서비스(The-K예다함) 가입, 소프트웨어 통합설치 및 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른 공지사항을 안내하였다.

23일에 진행된 영업팀 유닛회의는 창원에너텍(주)에서 진행하였다. 사업부 영업현황 및 단가 공유와 자원순환촉진법 관련 내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3사가 합병함으로써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찾기 위한 영업 전략을 토론 하였으며, 각 사업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원에너텍 서종필 부사장님의 창원에너텍 준공 동영상과 소개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쳤다. (끝)



KC환경서비스(주), 운영공무 유닛 회의 진행

지난 30일, KC환경서비스(주) 창원사업부에서 운영공무 유닛 회의가 열렸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들의 진행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에는 12개의 주제에 대해 완료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한데 모았다.

이어 여수사업부에서 진행중인 온실가스감축 설비지원사업의 진행현황이 공유되었다.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 전기사용량을 절감하였고 이는 3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각 사에서 사용중인 내열강 구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동일 업체와 지역업체를 사용하여 구매중인 내열강의 공동구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제품사양이 일부 다르지만 구매 단가에 차이가 있어 여수사업부 박성기 팀장이 각 사업부의 사양과 단가를 조사하여 이 정보를 토대로 IMK와 함께 공동구매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사업부에서는 연소성능개선제 도입 효과에 대한 결과 공유가 되었다. 투입 약품의 비율을 조절 하였음에도 클랭크 억제 효과가 미진하여 연내 Soot blower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어)



(↑) 운영 공무 유닛 회의

이날 회의에 참석한 KC그린홀딩스(주) 전략경영팀 성장제 대리는 내부적으로 연구활동을 통해 작성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우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어떤 연관성과 기회요인이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운영공무팀 인원들은 여러가지 사업기회와 폐기물 분리선별 과업이 로봇과 IoT 기술에 접목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주 사업부 김영구 팀장은 “각 사업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를 센서와 로봇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진행하고 성상과 열량에 따라 분리된 폐기물을 투입한다면 에너지 생산효율 증대와 운영일수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끝)



(↑) 창원에너텍 운전실 방문

(↓) 전주사업부와 창원에너텍의 화격자 상태와 규격 측정 중인 여수사업부의 이영운 상무



KC코트렐(주) 중국법인, 창립 15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23일, KC코트렐(주) 중국법인은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2002년 6월에 설립된 KC코트렐 중국법인의 15주년을 맞아, 서동영 대표이사의 기념사가 있었다. 이후 15년의 성장과 성과를 돌이켜보고 더욱 성장할 미래를 기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근무만 10년을 채운 직원들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한 58명의 KC코트렐 중국법인 직원들이 참석 하였다. 저녁 만찬 시간 이후에는 불꽃 놀이 시간을 가지며, 뜻깊은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끝)

